

응용지리학으로서의 군사지리학 역할 제고에 관한 연구

황성한* · 김만규**

A Study for the Role Enhancement of Military Geography as an Applied Geography

Sung-Han Hwang* · Man Kyu Kim**

요약 : 군사지리학은 지리과학 기술과 지식을 전쟁에 활용하는 관점에서 1960년대에 출현한 응용지리학의 한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폭력 행위를 수반하는 전쟁에 대한 기여는 학문 연구의 도덕적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였고, 이는 학문 연구의 침체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응용지리학으로서 군사지리학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군사지리학의 역할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전쟁과 군사학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군사지리학 연구가 기존의 전쟁 기여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는 관점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군사지리학의 연구 기능은 연구 방향의 관점에 따라 전쟁에 기여하기도 하고 인류의 삶 증진에 기여할 수도 있는 이중적 속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군사지리학 연구가 지금까지는 전쟁기여에 필요한 활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향후에는 인류의 삶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도덕성 측면의 미흡성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군사지리학이 전쟁과 평화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완전한 학문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군사지리학, 응용지리학, 도덕성, 활용성, 속성

Abstract : Military geography has been recognized a part of applied geography appeared in 1960s by the viewpoint applying geographical science technology and knowledge for war. But the contribution for war accompanying violence caused negative recognition in moral viewpoint and led stagnation of military geography's study. Therefore this paper has researched a method improving the role of military geography as a part of applied geography and considered the essential meaning of the military geography's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ar and military sciences. Based on this consideration, this paper proposed a research direction necessary for the role contributing human development beyond the viewpoint focusing contribution for war. The result of this study confirmed the characters of the military geography's elements have two attributes contributing for war victory or improving human life quality. Military geography has laid emphasis for usability to war contribution until now and caused unsatisfactoriness of morality. But military geography can complement this unsatisfactoriness by the extension of the role contributing human life quality. This study could examine the possibility doing the role contributing for both war and peace as a intact science.

Key Words : military geography, applied geography, morality, usability, attribute

* 공주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과정(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of the Kongju National University), jmy6397@naver.com

**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ongju National University), aquasia@kongju.ac.kr

1. 서론

일반적으로 학문의 목적은 현상을 설명하고 규명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다. 지리학의 경우에도 이러한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지리학의 연구 목적 중의 하나는 지리학적 현상을 설명 및 규명함으로써 인간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다. 지리학에서는 군사지리학을 응용지리학으로 분류하고 있다. 응용지리학으로서 군사지리학에 대한 기대는 전쟁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인문·자연지리학적 현상으로부터 비롯되는 많은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군사지리학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면서 인간의 의식적, 문화적, 공간적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연구 분야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동시에 군사지리학은 전쟁수행에 필요한 군사이론의 확립에 있어서 군사력 설계 및 운용과 관련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육군교육사령부, 1987). 한국의 군사이론연구는 군사지리학을 군사이론의 실제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과 관련된 군사지리학의 연구는 '폭력의 행사'에 기여하는 연구라는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였다. 이는 지리학자들로 하여금 연구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과 정치적 정당성 측면에서 연구의 명분을 상실케 하는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1970년대부터 응용지리학으로서의 군사지리학은 학문연구의 침체현상을 나타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그러한 부정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학문적 논의가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응용지리학으로서 군사지리학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응용지리학의 의미와 군사지리학을 응용지리학으로 분류하는 과정에 대한 담론을 통하여 군사지리학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군사지리학이 실제로 관여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전쟁과 군사학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군사지리학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끝으로 응용적 관점에서 군사지리학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보편적

학문으로서의 역할 수행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국내외의 일반 학술자료를 활용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응용지리학과 군사지리학의 관계를 고찰한 다음에 군사지리학과 전쟁연구 관련 분야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응용지리학으로서의 군사지리학과 전쟁, 군사학, 그리고 군사이론 및 용병술 간의 관계를 식별하여 군사지리학이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와 그 특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결론으로 군사지리학 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5분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과 제2장 선행연구 검토에 이어 제3장에서는 군사지리학이 응용지리학으로 분류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군사학과 군사지리학의 관계를 전쟁, 군사학, 그리고 군사이론 및 용병술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군사지리학이 응용지리학으로서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전쟁 기여 역할에서 초래된 학문연구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제5장에서는 응용지리학으로서 군사지리학의 학문적 역할 제고를 위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응용지리학으로 분류되는 군사지리학 연구의 학문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응용지리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행연구 검토는 응용지리학이 형성된 과정과 학문적 의미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사지리학의 형성 과정에 관련된 문헌을 살펴봄으로써 응용지리학의 한 분야로서 그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1) 영미권의 응용지리학 연구

영미권의 주요 연구는 응용지리학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응용지리학' 용어

는 1890년 켈티에(Keltie)의 ‘응용지리학: 예비 기술 (Applied Geography: A Preliminary Sketch)’에서 처음 사용하였다(이희연, 1996, 330). 주로 경제지리학의 연구분야로 포함되던 공업, 상업, 식민지화 등과 같이 인간활동에 지리적인 지식을 활용한 분야를 응용지리학이라고 인식하였다. 이후 혼벡(Horn-beck, 1899)이 초기 응용지리학의 개념을 ‘특정한 관점에 대한 연구의 한계와 특수성에 대해 지리학적인 고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Pacione, 2011, 9). 스탬프(Stamp, 1960)는 응용지리학에 대한 정의를 보다 현대적 관점으로 구체화 했다(Stamp, 1960, 10-11). 그는 응용지리학을 1900년대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개발된 지리학문의 조사, 분석 방법을 저개발지역의 개발과 삶의 질 증진, 지역 인구 증가 압박 문제 등의 해결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공식적인 학문으로서의 응용지리학은 1964년 런던 국제지리학회(I, G, U: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¹⁾ 회의에서 응용지리학위원회(Commission on Applied Geography)를 설립하면서 탄생하였다. 이후 주요 연구로는 레본·스탬프(Lebon and Stamp, 1967)의 토지 이용과 관련된 연구, 존스톤(Johnston, 1981)의 양적 분석 관련 연구, 그리고 파시오네(Pacione, 1999)와 상트(Sant, 1992) 등이 실시한 응용지리학의 특성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레본·스탬프(1967)는 수단(Sudan)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필요한 정부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토지이용도 활용의 중요성을 제시했다(Lebon and Stamp, 1967, 116-117). 존스톤(1981)은 응용지리학적 관점에서 정책시행에 대한 분석을 5가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Johnston, 1981, 213-216). 상트(1992)는 이들의 연구를 배경으로 기초지리학으로부터 응용지리학의 분리와 이러한 관점에서의 기술 활용 강조는 학문의 스펙트럼을 좁게 한다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Sant, 1992, 295-296). 파시오네(1999)는 사회적·환경적 문제 해결에 지리학적 지식과 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연구를 실시했다(Pacione, 1999, 1-2). 또한 응용지리학이 기초지리학의 학문적 논의의 과정을 기반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Pacione, 2011, 7-10). 응용지리학과 기초지리학이

구분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상트와 파시오네는 동일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서양의 응용지리학은 19세기 후반에 인식된 후 초기에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1964년에 이르러 학문으로 공식적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지리학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단계로 스펙트럼(spectrum)이 넓어져 온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 이후 응용지리학의 특성에 대한 정립을 시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한국의 응용지리학 연구

한국의 응용지리학 연구는 서양의 응용지리학 인식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온 양상을 보여주었다. 조동규(1976)의 응용지리학 특성과 전개 양상에 대한 연구, 이희연(1996)과 신용석(2005) 및 심재현 등(2012)의 응용지리학 스펙트럼의 확장과 관련된 연구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조동규는 1970년대까지의 한국의 응용지리학의 발전단계를 3개 기로 구분하였다(조동규, 2011, 7-10). 이희연은 1970~1990년대의 응용지리학의 발전단계에 대한 구분을 실시했다(이희연, 1996, 332). 한국의 응용지리학 연구는 토지이용과 관련된 초기 서양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면서 관광 및 인구의 수명과 관련된 분야로 연구의 스펙트럼을 확장해온 특성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응용지리학 연구 역시 서양의 연구와 유사한 패턴으로 초기에는 토지이용에 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그 이후 정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²⁾과 연계한 지역연구와 국토개발, 관광개발, 그리고 인간의 장소도 등 복지와 관련한 영역으로 연구범위를 확장해 왔다.

3) 군사지리학 연구

군사지리학을 응용지리학이라고 보는 관점은 ‘전쟁에 대한 기여’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개념 형성에 필요한 최초 인식에 기여한 인물과 이후 관련 연구를 수행한 주요 학자로는 프레드릭대왕(Fredrick The Great, 1747), 라발레(Lavallee, 1836), 잭맨

(Jackman, 1962), 펠티어·피어시(Peltier and Percy, 1966), 팔카(Palka, 1995), 우드워드(Woodward, 2005) 등이 있다.

군사지리학 연구의 주류인 전쟁 기여 면의 연구는 월남전 참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여파로 인해 1970년대에 들어서 학문연구 면에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였다. 군사지리학이 가지는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 이후 팔카(1995)와 우드워드(2005)는 각각 평화유지 및 인도주의 활동, 그리고 군대의 전·평시 제반 활동과 관련된 지리학적 공간의 특성 분석 등에 대한 분야로 연구영역 확장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국에서는 군사지리학과 관련하여 원익환 등(1980)의 육사생도 교육용 『군사지리』를 시작으로 국방대학원 교수부에 의해 펠티어·피어시(1966)의 『Military Geography』를 번역한 『군사지리(1988)』 발간 등이 이어졌다. 이어서 현대우(1991), 김형남(1991), 김형용(1995), 이한중(1999), 김만규 등(2010; 2013)이 군사지리학 관련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다. 한국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군사지리학 연구도 서양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군사지리학을 전쟁 기여 면에서 응용지리학으로 분류하였다. 군사 업무수행 목적 외 기초학문적 연구문헌은 소수에 그친 가운데 김형용(1995)의 연구 외에 2000년대 이후 지리학 기술의 접목에 관한 연구가 일부 식별되고 있다.

4) 선행연구 검토결과

선행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결과 응용지리학에 대한 개념은 1890년대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1964년에 학문으로 분화되었다. 기초지리학으로부터 별도 분리는 학문의 스펙트럼(spectrum)을 좁힐 것이라는 상트와 파시오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용지리학은 정상적인 발전의 단계를 꾸준히 거쳐 왔다. 초기에는 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연구의 주안을 두었으나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지리학 기술을 활용하는 범위로 연구의 스펙트럼을 확대하여 왔다. 군사지리학은 전쟁 기여 면에서 인식의 과정을 거친 후에 지리학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는 응용지리학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기여는 학문연구의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 평화유지 및 인도주의 활동 등으로의 연구 영역 확장을 통한 연구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응용지리학과 군사지리학의 관계

1) 응용지리학으로서 군사지리학에 대한 인식

잭맨(1962)은 군사지리학을 ‘지리적 원칙과 지식을 군사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지리학의 하위학문’이라고 정의하였다(Jackman, 1962, 7-12). 이러한 그의 인식은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지리학 지식의 효용성을 중시하는 실용적 관점에 주안을 두었다. 군사지리학을 응용지리학으로 분류한 효시는 1966년에 펠티어와 피어시가 발간한 ‘군사지리(Military Geography)’이다. 1960년과 1964년의 국제지리연합회의를 거치면서 경제지리학에서 응용지리학이 나누어진 이유와 동일선상에서 이들은 군사조직도 결국 산업분야의 한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군사지리학을 응용지리학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군사조직이 산업분야에 속하는 이유로 자원, 수송, 공급, 건설, 설계와 같은 요소들을 들었다. 군사지리학의 구성요소로는 대전략(Grand Strategy) 지리, 전략적 지리, 전술적 지리, 군수지리, 민사지리, 군사지리적 지역, 지정학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조동규(1976)는 1972년 캐나다 몬트리올(Montreal) 국제지리연합회의에서 발표된 응용지리학의 주요 논문들이 원격탐사(remote sensing), 항공사진 이용, 계량화, 컴퓨터에 의한 지형도(computer landscape map), 응용지형학, 도시 및 지역개발, 토지이용계획 등을 다루었음을 밝혔다(조동규, 1976, 51). 이 중에서 원격탐사와 항공사진 이용, 컴퓨터에 의한 지도제작 등이 현대의 군사지리학 기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은 이라크전의 양상을 분석한 팔카 등(2005)의 연구에 의해서 확인되었다(Palka et al., 2005, 374-379). 이는 군사지리학의 주요 연구대상

분야가 응용지리학의 스펙트럼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펠티어와 피어시(1966)는 응용지리학으로서 군사지리학의 이용 범위를 국력의 평가, 작전지역 분석,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 등 3가지로 구분하였다(국방대학원역, 1988, 18-27). 일반적으로 국력 평가의 주요 결정 범위에는 인구와 자원이 포함된다(권영식 등, 1976, 21-23). 군사지리학적 측면의 국력인 군사력은 자원의 효율적 지원과 사용에 의한 우수한 훈련과 장비로 조직된 군대에 의해서 극대화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원의 범주에 군수품의 비축 및 생산능력과 제조 원료의 가용성, 수송과정에서 야기되는 난관을 극복하는 모든 노력이 포함된다. 군사적 측면에서의 공급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급은 전시에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물질적 보급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 신용을 유지함으로써 전쟁지속능력 보유를 가능하게 한다. 건설 및 설계는 군사력 강화 측면에서 전투진지를 포함한 각종 군사시설 구축과 효율적 작전에 필요한 제반 군수품 제작에 필요한 설계 등을 포함한다. 작전지역 분석은 가용부대의 배비 및 기동, 무기체계 운용, 보급원에 영향을 주는 전장 전체의 공간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육군대학, 1989, 196-197). 이러한 작전지역 분석은 전력개발과 전술개념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응용지리학으로서의 위치를 잘 보여주는 분야이다. 작전지역 분석의 정확성에 의해서 전투의 승패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지리적 조건이 군사작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군사지리(원익환 등, 1980, 351-353)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 북아프리카의 사막지역 전투 간 작전수행부대가 적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막에 의해 초래되는 불리한 전장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고 밝힌 사실은 작전 수행 간 정확한 지형분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병력과 군수품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의 환경조건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작전 목적에 부합한 군수품의 설계 및 채택과 필요한 군사훈련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다. 이러한 작전지역 분석과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은 군사지리학 연구에서 지형,

기후 등 자연지리학 요소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다.

군사평론(육군대학, 1988, 7)에서는 군사지리학을 지리학적인 요소를 군사적 행위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응용지리학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사지리학 체계를 각급 제대에 부합되게 활용 가능하도록 군사전략지리, 작전술지리, 전술지리로 구분하였으며 그 결과는 용병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했다. 구체적인 수행내용 면에서 전략지리에서는 지정학적 위치 분석을, 작전술지리에서는 작전지역 특성 분석을, 그리고 전술지리에서는 전장특성 분석을 실시한다고 했다. 이는 군사지리학 관점에서 지형적 특성이 국가의 용병술 형성을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상기 담론의 과정을 통해서 군사지리학을 응용지리학으로 인식하게 한 주요 요인은 '전쟁에 대한 기여'면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군사지리학적 요소인 지형과 기후가 제공하는 조건이 전쟁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군사지리학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리과학기술의 영역에 속하는 원격탐사, 항공사진, 컴퓨터에 의한 지도제작 등의 군사적 활용은 군사지리학 요소의 중요성을 더욱 증가시켰다. 그 결과 군사지리학은 군사이론의 구성요소인 전략, 작전, 전술과 용병술 형성에 필수적인 분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국내외 연구경향 비교

(1) 영미권의 연구

응용지리학 인식에 기반을 둔 군사지리학 연구를 수행한 영미권의 주요 학자로는 잭맨(1962), 펠티어·피어시(1966), 팔카(1995), 우드워드(2005) 등이 있다. 잭맨(1962)은 군사지리학 연구를 '전쟁에 대한 기여 면의 역할'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Jackman, 1962, 7-12). 기원전·후를 기점으로 한 군사지리학 요소에 대한 인식 형성의 단계에서부터 19세기에 학문으로서 정립되는 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를 실시했다. 그의 연구는 군사지리학의 전쟁 기여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응용지리학으로 연결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펠티어·피어시(1966)는 군사지리학의 본질과 이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국방대학원역, 1988, 152-158). 군사지리학은 국가의 최고지휘부에 관련된 부분으로부터 소규모 군사활동 수행에 이르기까지 지리학적 요소가 작용하는 장소나 지리에 관한 문제를 망라하여야 한다는 연구범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군사지리학이 응용지리학임을 분명히 했다. 팔카(1995) 또한 군사지리학을 군사력 사용에 기여하는 학문으로서 객관으로부터 펠티어 등으로 이어진 전통적인 인식에 바탕을 두었다(Palka, 1995, 201-208). 그의 연구는 응용지리학으로서의 군사지리학에 대해 지리학적 지식과 기법의 군사 분야 활용을 우선시하는 연구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우드워드(2005)는 전쟁 기여 관점의 군사지리학 연구가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사지리학의 연구범위가 무장분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Woodward, 2005, 126-151). 이는 군사지리학이 전쟁에 대한 기여가 아닌 군사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구비함으로써 학문 연구의 도덕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쟁기여 위주의 연구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응용지리학으로서 군사지리학에 대한 연구영역 확장과 연구방향에 대한 논리적인 제시를 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각 연구자의 분야별 방안 제시에 치중한 결과 응용지리학으로서 군사지리학이 필요로 하는 큰 틀의 학문영역과 연구방향 제시가 미흡한 상태이다.

(2) 한국의 연구

펠티어와 피어시의 저서를 번역한 국방대학원의 '군사지리(1988)'는 한국 군사지리학 관련 문헌의 이론적 개념 구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형남은 군사지리학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였다(김형남, 1991, 5-7).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에서는 미군의 활용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형용은 한반도의 군사지리학적 특징이 전쟁에 미친 영향을 지형 및 기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김형

용, 1995, 18). 그의 연구는 군사지리학의 범위를 군사작전적 활용 측면으로 국한시켰다. 이한중은 군사지리학을 국력의 평가, 상황판단을 위한 작전지역 분석, 군수지원 분야의 기준 설정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이한중, 1999, 481-490). 그의 연구는 작전적 활용 측면에 목적을 두었으며, 대부분 『군사지리(국방대학원역, 1988)』의 내용을 인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김만규 등(2010)은 군사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지리정보체계 활용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또한 김만규 등(2014)은 제반 자연환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합성환경 모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지리정보체계와 시뮬레이션 기술을 군사과학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군사지리학 연구는 영미권의 연구를 바탕으로 했으나 군사적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배양 목적 위주의 제한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따라서 응용지리학으로서의 구체적인 인식 및 학문적 발전 노력은 미흡한 상태이다.

(3) 한국과 영미권의 연구 비교

영미권의 군사지리학 연구는 응용지리학적 인식에 기반을 둔 가운데 전쟁 기여 면에서 초래된 연구 침체 현상 극복과 학문연구 활성화를 위한 담론을 제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리학의 하위학문으로서 체계적인 학문영역과 연구범위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했다. 한국의 군사지리학 연구경향은 전쟁 기여에 중점을 둔 영미권의 연구 경향을 따르고 있으나 학문 발전 측면의 학문영역과 연구방향 설정 등에 관한 연구는 미흡했다. 대부분의 연구는 군 교육 및 연구기관 관련 인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는 한국의 군사지리학 연구가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그 존재가 인식되어온 결과 지리학의 하위학문으로서의 연구관심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응용지리학으로서의 학문적 위상 정립과 역할에 관한 인식은 미흡하다. 동서양에서 수행되어온 군사지리학 연구는 공히 응용지리학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학문 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미흡한 상태이다.

4. 군사학과 군사지리학의 관계

군사학은 전쟁에 관한 학문으로서 군사이론과 용병술을 그 주요 연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군사학에서는 군사지리학을 지리학적인 요소를 군사적 행위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학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학과 군사지리학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군사학의 주요 관심 분야인 전쟁과 군사이론 및 용병술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1) 전쟁과 군사지리학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전쟁의 본질과 전쟁수행 및 그 결과, 전쟁 특성의 변화와 관련되는 군사지리학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전쟁과 군사지리학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전쟁의 본질과 군사지리학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위해서는 볼커먼(Volkman), 라젤(Ratzel), 클라우제비츠(Clauswitz) 등과 같은 주요 학자들의 인식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볼커먼(2002)은 인간이 살아 온 약 3400여년의 기간 중에 단지 268년의 평화시대를 제외하고 전쟁은 지속되었다고 했다(석기용역, 2003, 28).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련 학문에서 전쟁은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젤(1897)은 전쟁은 공간상에서 인간의 폭력적인 이동이라고 해석하면서 지리학의 정상적인 연구대상임을 강조하였다(Mamadouh, 2004, 28-30). 그는 전쟁을 역동적인 국가 간의 경쟁에 의한 공간상의 확장 노력의 일환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공간적 현상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가 곧 군사지리학을 의미한다고 했다. 전쟁을 군사지리학의 공간부문 연구대상으로 인식한 것이다. 클라우제비츠(1832)는 전쟁의 본질에 대해 “전쟁이란 적을 굴복시켜 자기의 의사를 실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폭력행위이다.”라고 하였다(이중학 역, 1974, 2-3). 클라우제비츠가 강조한 전쟁차원의 ‘폭력행위’는 지리학적 관점의 전개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인식을 통해서 군사지리학은 폭력행위를 수반하는 전쟁의 본질적 특성

이 펼쳐지는 전개공간에 대한 지리학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군사지리학과 전쟁수행 면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전쟁수행의 구체적 수행단계인 전술, 작전, 전략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구체화된다(육군대학, 1988, 8-9). 무레이(Murray, 1998)는 전쟁과 군사지리학과의 관계를 그동안 수행되어 온 주요 전역의 승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서 전술, 작전, 전략의 3개 프레임(frame)으로 구분하였다(Murray, 1998, 202-208). 전술적 차원에서는 ‘전투에서의 지형평가 요소’ 수준으로, 작전적 수준에서는 전투공간의 특성, 그리고 전략 면에서는 지정학적 요소의 수준에서 군사지리학과 전쟁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역사상 주요 전투의 승패를 결정지어온 요인 면에서 뛰어난 지휘관의 지략 외에 군사지리학적 요소인 지형이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뛰어난 명장들이 군사지리학 분야의 요소들을 중시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역사상 뛰어난 전략가의 하나인 나폴레옹(Napoleon, 1796)과 미국의 남북전쟁시 셔먼(Sherman, 1844) 장군³⁾은 각각 이탈리아 전역(Italy Campaign)과 아틀란타(Atlanta)-차타누가(Chattanooga)-사바나(Savannah)전역 수행에 앞서 해당 지역의 지형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Maguire, 1899, 9-10).

전쟁수행 결과와 군사지리학의 관계는 전쟁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닝(Haning)은 “지리학은 전쟁의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Haning, 2009, 32). 그는 지리적 위치와 기후, 지형, 그리고 자연전경 등은 전쟁 승패의 향방에 결정적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한국고전사』에 의하면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은 정복활동을 활발히 펼친 군주로서 광활한 영토를 확보하였으며, 우리 역사상 최초로 ‘영락(永樂)’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다(육군본부, 2007, 113). 이는 영토 확장의 결과에 의해 중국 대륙과 대등한 강대국의 위치를 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대전쟁의 논리와 철학』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개발 집착 의도는 한국을 볼모로 미국에 의한 확전을 막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강진석, 2012, 288-289). 한반도가 한국전쟁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한

국의 전장중심은 현재와 같이 좁아진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 국력의 차이와 군사기술 면에서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건설할 수 없는 북한이 (핵)미사일의 보유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남한을 볼모로 활용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양욱(2011)은 전쟁 특성의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paradigm)을 4세대로 구분하였다(양욱, 2011, 30-33). 이와 관련한 군사지리학 요소와의 관계는 표 1과 같다. 전쟁특성 변화와 군사지리학의 관계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1세대 전쟁 수행 간에는 자연지리학 요소인 지형정보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다. 프레드릭 대왕의 지시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유리한 지형의 확보는 상대적인 전투력의 우세로 발휘되었다. 제1, 2차 세계대전을 포함하는 2·3세대 전쟁 수행 간에는 지형정보 및 지리과학기술의 활용과 함께 지정학적 여건에 따른 국가 차원의 군사전략이 구사되었다. 양

차 세계 대전 간 미군의 전투수행에서 지리학자에 의한 지리과학 기술과 지형정보의 활용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Palka, 1995, 201-208). 러시아(구소련)의 ‘공간 양보를 통한 반격 여건 확보’ 및 이스라엘의 ‘선제적 공격’전략은 군사지리학의 중요한 요소인 지정학적 위치와 국토 면적의 여건에 따라 채택한 국가 차원의 군사전략이다. 정치적인 승리가 우선시되는 4세대 전쟁 간에는 3세대 전쟁과 관련되는 군사지리학 요소 외에 인문지리학 측면의 인종, 종교 등의 역할이 증시되고 있다. 전쟁 특성의 변화와 함께 군사지리학의 대상 범위는 자연지리학 요소와 지리과학 기술의 증시에서 점차 인문지리학 요소의 포함이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전쟁과 관련된 군사지리학 요소의 작용은 표 2와 같이 정리된다.

전쟁은 전개공간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또한 전쟁 수행 간에 전략, 작전, 전술적 수준별로 군사지리학적 요소의 영향에 의해 그 수행방법이 구체화되어진

표 1. 전쟁수행 패러다임 변화와 군사지리학과의 관계

전쟁형태	주요내용	군사지리학과의 관계
1세대 전쟁 (나폴레옹 전투 등)	• 선과 대형의 전술 구사 • 적의 근접 전력 파괴 집중	• 자연지리학 요소인 유리한 지형 확보를 통한 상대적 우세 달성
2세대 전쟁 (제1차세계대전 등)	• 화력에 의존 • 적 전투력 파괴 집중	• 전술적 측면의 지형정보 활용 • 지리과학기술에 의한 공격력 증대 • 지정학적 여건에 의한 군사전략 채택
3세대 전쟁 (제2차세계대전, 중동전 등)	• 충격·공포를 주기 위한 기동성 강화 • 적의 지휘통신·군수시설 파괴 노력	
4세대 전쟁 (중국 공산화, 베트남·아프칸 전쟁 등)	• 비대칭 전력, 네트워크 전쟁 • 군사적 승리보다 정치적 승리 우선	• 지형정보, 지리과학기술, 지정학 요소 활용 • 인종, 문화등 인문지리학 요소 역할 증대

표 2. 전쟁과 군사지리학의 관계

구분	군사지리 요소의 작용
전쟁의 본질	• 전개공간 제공
전쟁수행	• 전략면: 지정학적 여건에 의한 전쟁수행 공간 선택 판단 • 작전면: 작전지역 특성(자연·인문지리학 요소)이 공격, 방어 규모 및 방법 선택에 중요 • 전술면: 지형과 기후에 부합한 전투방법 채택
전쟁수행 결과	• 국토 확대: 국력신장 가능 • 국토 축소: 군사 전략적 여건에 불리한 환경 제공

다. 그리고 전쟁 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국토의 형태는 국력과 군사전략 구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전쟁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군사지리학의 관계는 군사적 활용과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전쟁과 군사지리학은 군사지리학적 요소를 승리 획득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또한 그러한 활용적 측면의 중요성이 군사지리학을 응용지리학으로 분류하는 주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군사학 및 군사이론에서 군사지리학의 위치

(1) 군사학 및 군사이론과의 관계

조미니(Jomini)는 ‘전쟁술’에서 군사지리학과 관련하여 “적축하게 될 모든 자연 및 인공 장애물과 더불어 전구(戰區)에 대한 지세적(地勢的) 및 전략적 기술과 국경선 전역과 국토 전반에 걸쳐서 제시되어야 할 영구적인 결정점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국방대학원 역, 1987, 34-35). 그 예로서 1813년 나폴레옹(Napoleon)이 보헤미아(Bohemia) 분지를 불필요하게 우회 기동한 사실을 들었다. 이는 작전지역의 지리학적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국가 차원의 군사전략 채택도 지형학적 여건에 따른 지세적 판단의 결과로 국가적 전쟁수행의 결정점을 선택한 결과이다. 줄리안 라이더(Julian Lider, 1983)는 군사력 사용을 위한 8개 이론 분야 내에 군사지리학을 군사지리사(軍史地理史)와 인접 특별 연구 분야 등 2개 분야의 연구요소로 포함하였다(국방대학원 역, 1985, 325-326). 이는 전략·전술의 흐름에서 군사지리학적 요소인 지정학적 여건과 문화 그리고 지형과 기후의 특성을 식별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이론연구(1987)에서는 군사적 측면과 비군사적 측면으로 구분한 군사이론의 범위에서 군사적 측면의 한 분야로 군사지리학을 포함시켰다(교육사령부, 1987, 61-63). 이 또한 군사이론이 군사지리학적 요소에 부합하는 적합성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군사지리학은 군사이론의 형성에 있어서 지정학적 여건과 문화, 그리고 지형과 기후 등에서 비롯되는 작전환경 여건

에 부합한 논리를 반영하는 학문으로서 군사이론 형성의 필수적 분야이다.

(2) 용병술⁴⁾과 군사지리학의 관계

손자는 “무릇 지형이란 용병에 도움을 주며 적을 헤아리고 판단하여 승리태세를 만들어 가며 지형이 험하고 좁고 멀고 가깝고를 계량하고 활용하는 것은 최고 장수의 용병술이다.”라고 하였다(김광수 역, 2004, 381-403). 이는 용병술의 관점에서 지형의 중요성을 일컫는 것으로 단순한 지형인식이 아닌 활용성 차원에서 보다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군사이론연구(1987)에서는 군사지리학을 군사이론을 실제 적용할 대상으로서 설정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교육사령부, 1987, 63). 군사이론의 실제 적용은 용병을 일컫는 것이며, 적용대상이라는 것은 군사이론이 군사지리학적 환경에서 구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군사지리학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용병술 형성의 기반이 되는 학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종학(2010, 145-610)에 의하면 고구려, 고려, 조선, 한국전쟁에 이르는 용병술 형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한반도는 전 국토의 약 70%가 산악인 지형 여건상 조선시대까지는 주요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에 지형지물을 이용한 성을 쌓아 군사기지화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을 중심으로 한 전투 수행이 많이 이루어졌다. 고구려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형에 성을 구축한 다음 주변의 토지를 경작하다가 유사시에는 농작물을 거두어 성에 들어가 방어하는 청야입보(淸野立保)를 기본전술로 활용하였다. 병행하여 구사한 이일대로(以逸待勞)는 아군에게 유리한 지점까지 적을 유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적의 병참선을 과도하게 신장시킨 후 전투력이 약화된 적의 약점을 포착하여 즉각 공격에 나서는 전술이었다. 이는 한반도의 70% 이상이 산악지형이라는 지형적 특성을 잘 활용하여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는 데 중점을 둔 용병술이다. 고려시대의 견벽고수전술(堅壁固守戰術)⁵⁾과 인병출격전술(引兵出擊戰術)⁶⁾은 각각 고구려시대의 청야입보와 이일대로 전술개념을 이어받은 유사한 전술적 운용 방식이었다. 조선시대의 군사력 운용도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성을 중심으로 한

거점중심방어체제(據點縱深防禦體制)⁷⁾와 선수후공(先守後攻) 전술을 구사하였다. 적이 침입할 경우에는 진관(鎭管)단위로 분포한 성을 이용한 청야입보, 이일대로 전술에 의해 축차적으로 적의 공격 기세를 약화시켰다. 그리고 일단 적의 약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반격전을 감행하여 격멸하는 선수후공(先守後攻)의 방어전술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전쟁 시 한국군이 미약한 전투장비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의 도착시간을 벌 수 있는 지연전(遲延戰)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었던 것 또한 산악과 하천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결과였다.

상기 고찰을 통해서 볼 때 조선시대 이전까지 적용되었던 후퇴유인전술과 한국전쟁의 지연전은 고구려 시대부터 전래된 한반도의 지형과 결합된 용병술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한반도의 시대별 용병술은 지리적 요소의 영향을 철저히 반영한 가운데 한반도의 특성을 고려한 일관된 흐름을 유지해 왔다. 한반도에서 고대로부터 한국전쟁 시까지 일관되게 적용된 중심방어체제 하의 유인격멸전술과 유격전은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용병술이었다.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을 이용하는 기반에 근거했기 때문에 시대별 운용 간 형태면의 변형은 있었지만 그 본질적인 개념은 동질적인 흐름을 이어왔다. 이는 한반도의 용병술 형성에 있어서 지형이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한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다.

3) 전통적 연구 관점에서 본 군사지리학

(1) 전통적 관점의 군사지리학 연구의 역할

전통적 군사지리학 연구의 관점은 군사지리요소를 전쟁승리에 활용하기 위한 측면에서 연구하는 것이었다. 전쟁의 승리가 증시되어 온 근대 이전에 수행한 군사지리학 연구는 대부분 이러한 관점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전쟁은 인간의 무리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강력히 이동하는 폭력적인 이동”이라는 라젤(Ratzel, 1897)의 주장은 자연스럽게 전쟁과 관련된 군사지리학 연구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맥과이어(Maguire, 1899)는 1800년대 프러시아(Prussia)군의 전례를 통하여 군사작전과 전술

적 판단에 대한 군사지리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Maguire, 1989, 3-4). 프러시아군은 1806년 프랑스와의 전쟁인 예나(Jena)-아우어슈테트(Auerstedt) 전투에서 패배 후 각 전역(戰域)을 직접 순회하면서 과거 전장 환경에 대한 지리학적 지식을 배양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1870년 말 알사스-로렌(Aisace-Lorraine) 지역 침공 후 그 지역을 확보할 목적으로 잔류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프러시아의 지형연구 활동은 이후 독일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제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전략개념 수립의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군사지리학적 식견 및 필요에서 비롯된 전략적 선택이었으며 군사지리학 관점이 군사전략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존슨(Johnson, 1921)은 작전과 전략적 측면에서 군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형에 대한 지식의 활용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Johnson, 1921, xviii-xix). 그는 군 주요 인사와의 대화, 주요 전역에 대한 역사자료 관찰 등을 통하여 군사작전에 있어서 주요 지형의 선정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요 지형의 선정을 통하여 병력의 전략적 집중과 견제를 통한 효율적 공격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클라우제비츠(Clausewitz)의 견해와 일치한다. 시드만(Sidman, 1994)은 군사지리학을 “전술, 전략, 군수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지리학 지식과 기법의 활용”이라고 정의하였다(Sidman, 1994, 202).

팔카 등(2005)은 이라크전(Iraq War)을 현대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군사작전의 모든 유형(강렬한 전투, 안정화 지원작전, 평화유지 활동 등)을 보여준 사례로 인식하였다(Palka *et al.*, 2005, 373-374). 군사작전은 군사지리학적 요소인 작전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전경에 의해서 제공되는 작전 환경에 의해 부대 규모, 작전 템포(tempo), 복합적인 군사행동 유형 등이 결정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군사지리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특성 분석을 위해서 이라크의 자연지리학적 요소인 위치, 규모, 지형, 하천 등과 인문지리학적 요소인 문화, 인종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군이 작전간 활용한 원격탐사, 디지털 지도제작, 지형정보체계(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등 지리학적 기법의 역할이 가지는 중요성

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도일·베넷(Doyle and Bennett, 1997)은 역사적인 군사 활동을 복원할 수 있는 기록저장소 및 전투의 인류학적·문화적 특성을 알아낼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지형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하였다(Doyle and Bennett, 1997, 1-3). 그들은 동일한 지형이 각각 상이한 시대의 군사 활동에 어떠한 유·불리점을 제공하였는지를 역사적 문헌 고찰을 통해서 살폈다. 고찰의 대상으로 지형과 지질을 포함했으며, 부대의 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구조의 특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서양에서 실시한 전쟁 기어 면의 군사지리학의 역할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지형정보를 전쟁의 승리에 활용하는 관점에서 군사지리학을 인식한 것이다. 즉 지리학적 정보를 전쟁 승리에 활용하는 응용지리학적 관점의 학문으로서 군사지리학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통하여 군사지리학은 응용지리학으로서의 이미지를 계속 굳혀 왔으며 이는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과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에서도 군 연구기관 위주로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전통적 관점의 군사지리학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국의 군사지리학 연구 또한 대부분 군사지리학을 전쟁기어 면에서 응용지리학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동안 국내외에서 수행되어 온 대부분의 군사지리학 연구는 '전쟁에 기여하는 학문'이라는 관점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는 전통적 관점의 군사지리학 연구로 불리고 있으며, 군사지리학을 응용지리학으로 인식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응용지리학으로서의 군사지리학은 과거에 영국과 프랑스 등과 같이 식민지 확장에 심혈을 기울였던 제국주의 국가의 영토 확장 논리에 대한 지식제공과 군대에 의한 무력 사용의 용이성을 부각시키는 면에서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군사지리학 연구가 현대의 군사작전과 연계되는 영역으로 확장되는 바탕으로 기여한 부분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폭력 행위를 수반하는 전쟁에 기여하는 분야 위주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화와 삶의 증진과 관련한 군사지리학의 역할에 대해서는 관심을 소홀히 하여 학

문적 연구 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하였다. 즉 학문영역의 관점에서 전쟁의 전 영역에 포함시켜야 할 전쟁의 결과에 따른 피해와 책임에 대한 인식의 부재는 군사지리학 연구의 도덕성 측면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에 월남전 참전에 대한 비판과 반전인식의 대두와 함께 제기된 급진지리학의 출현을 초래하였다.

(2) 급진지리학의 대두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고찰

군사지리학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전통적 관점의 연구를 통하여 전쟁에 기여하는 면에서 최고 절정기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월남전에 뒤따른 반전사상과 전쟁기어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 의해 군사지리학 연구는 침체기를 맞이하였다. 1800년대 후반 군사지리학 개념이 등장한 이후 지속된 군사작전에 기여해 온 전통적 연구관점에 대해 비판적 관점인 연구경향이 급진지리학 연구이며 라코스테(Lacoste)와 로더(Roder), 그리고 피트(Peet)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라코스테(1973)는 월남전 당시 미군이 베트남(Vietnam) 남부의 적강(Red River) 삼각주 일대에 실시한 대규모 폭격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다(Lacoste, 1973, 622). 그리고 이 폭격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군사지리학의 역할에 대하여 비판적인 인식을 제기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 폭격은 대규모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인명살상이 자행된 인위적인 계획이었고, 그러한 계획의 입안과정에 활용된 지리학적 식견과 정보는 매우 전문적인 것이었다. 비록 군사지리학자들의 능동적 참여가 식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문적 식견의 제공은 군사지리학자를 포함한 지리학계의 전문가에 의해서 제공되어 질 수밖에 없는 내용임을 감안하면 학문연구의 도덕적 관점에서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저서인 『지리학, 그것은, 먼저, 전쟁수행을 위해 사용되었다(La Géographie, ça sert, d'abord, à faire la guerre)』에서도 지리학의 전쟁수행 사용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Lacoste, 1976, 98). 그는 당시 학교에서 실시한 지리학의 공간분석 교육이 실제로는 전쟁수행 기여에 대한 목적을 숨기기 위해 가면을 씌운 것

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지리학은 행정적 또는 군사적 권력기관에게 공간과 주민을 통제할 수 있는 이론과 지식을 부여해 주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지고 있다.”라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지리학이 전쟁 활용 목적 이전의 순수한 학문적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로더(1973)는 앙골라와 모잠비크의 내전이 인구와 자연자원에 끼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Roder, 1973, 14-15). 그의 연구도 월남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전쟁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주목했다. 피트(2000)는 급진적 지리학의 태동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1970년대에 소규모 지리학자들이 월남전에 반대하여 급진적인 학문연구의 변화를 시도했음을 밝혔다(Peet, 2000, 951-953). 특히 1971년 보스턴(Boston)에서 실시한 미 지리학회(AAG: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토론을 통하여 이러한 급진적인 운동은 그 색채가 뚜렷해졌다고 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관점은 인권, 베트남전과 아프리카 국가의 내전에 의한 파괴의 양상, 그리고 환경오염 등 기존의 전통적 군사지리학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에 대한 지리학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영미권의 지리학계에서는 이들의 견해를 급진지리학으로 분류하였다. 급진지리학 연구는 기존의 전통적 연구 관점인 군사작전에 대한 기여 면의 군사지리학의 연구를 비판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 여파로 인해 군사지리학 연구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학문연구의 적절성 면에서 지리학자들에게 연구 부담을 초래하였으며, 연구 분위기를 침체시켰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팔카의 인도주의 및 평화를 위한 연구와 우드워드와 무장분쟁 외 영역에 미치는 군사주의의 영향에 대한 연구 등과 같은 새로운 방향제시가 대두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군사지리학이 응용지리학으로서 학문적 연구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한 기여 외에 평화를 포함하는 전쟁 이외의 군사활동과 관련한 분야에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전쟁기여에서 초래된 학문연구의 부정적 인식을 제거함과 동시에 인류의 발전적 측면에 대한 지식배

양에 필요한 연구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5. 군사지리학의 역할 제고를 위한 연구방향

기존의 군사지리학 연구가 학문으로서의 연구에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주요 이유는 ‘전쟁 기여’에 대한 역할로 인해 학문의 규범적 가치⁸⁾를 소홀히 인식했다는 데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사지리학 연구가 학문의 규범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지에 중점을 둔 발전적 연구방향을 논하도록 하겠다.

1) 도덕성 측면

학문 연구가 활성화되고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관점의 기준인 규범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대덕(1992)은 학문의 고유영역, 과학적 이론화의 가능성과 함께 학문의 규범적 가치를 군사학 분야 학문성립요건의 주요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하대덕, 1992, 11). 이 규범적 가치는 인류의 삶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적 도덕성을 가질 수 있을 때 확보가 가능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70년대에 발생한 급진지리학이 기존의 전통적 관점의 군사지리학 연구에 대해 비판을 가한 주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학문의 규범적 가치 측면에서 폭력과 인명의 살상을 가져오는 전쟁에 기여하는 점이 었다.

이러한 군사지리학 연구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학자로 팔카와 우드워드를 들 수 있다. 팔카는 평화유지와 인도주의적 관점의 군대활동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에서 미군이 지향하는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OOTW: Operation Other Than War)’에 대해 주목하였다(Palka, 1995, 202). 그는 군사지리학이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 분야에 대한 연구영역 확대를 통해 기존의 전쟁기여 위주에서 탈피함으로써

학문연구의 도덕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했다. 우드워드(1955)는 군사지리학 연구의 도덕성 확보 관점에서 군사주의와 군사활동의 결과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Woodward, 2005, 732).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군사지리학의 연구범위에 제반 군사활동 영역과 관련되는 공간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기존의 군사지리학 연구가 바로 이러한 도덕성의 가치를 경시하면서 전쟁수행 면에서의 활용성 증대에만 치중했던 현상에 의해 학문적 연구의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했다는 사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쟁기여 면의 연구에서 탈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군사지리학 연구가 침체되어온 배경에는 이러한 도덕성 측면에서 접근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데서 발생한 '군사지리학 연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철학적 가치가 있는 학문으로서 군사지리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연구방법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활용성 측면

팔카와 우드워드가 주장한 바대로 그동안의 군사지리학 연구에 대한 활용성은 곧 전쟁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활용된 부분을 의미하였다. 그러한 활용성의 범주는 군사지리학의 인식 초기부터 지형정보에 대한 활용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군사지리학의 기원으로부터 18세기 이전까지 수행된 군사지리학 분야 관련 연구 내용도 대부분 지형에 대한 초보적 수준의 활용성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던 시기로 군사지리학 관련 요소인 지형과 기상의 영향이 전투의 승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극히 초보적인 인식 및 활용의 단계였다. 펠로폰네소스전쟁(Peloponnesian War)(B.C. 431-404) 당시에 비, 바람, 눈, 안개, 습지 등에 의한 전투에서의 영향을 인식하던 수준이 1736년경에는 전투에서 부대의 배치보다 지형이 가지는 이점을 고려하

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수준으로 인식 및 활용 면에서 극히 초보적인 개념의 변화만 이루어졌다. 이러한 미세한 인식의 변화에 약 2000여 년의 시간이 소요된 이유로 이 기간이 대부분 전투의 승리가 절대적 목적이었던 전 근대적 시기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함께 시작된 군사지리학의 활용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군사지리학을 학문으로 인식하는 계기와 연구의 필요성을 유발하였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군사지리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관련 지리과학 지식의 전쟁 활용 필요성이 크게 증대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군사지리학의 활용성 증대는 월남전 수행기간에 대량 파괴 및 인명살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학문적 연구의 부정적 현상을 초래하였다. 팔카(1995)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월남전 시 대량 인명살상을 초래한 미군의 대규모 폭격 및 군사작전에 군사지리학 관련 기술이 사용된 사실과 이에 대한 급진지리학의 비판이 뒤따른 사실은 활용성은 높아졌지만 도덕성 측면의 고려는 미흡했음을 의미했다.

전통적 관점에서 수행된 많은 군사지리학 연구가 '전쟁기여 면'의 활용성에 치우친 경향을 보인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전쟁승리 면에서 지리과학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군사지리학 분야의 기술 활용성은 도덕적 관점의 인식이 미흡하거나 결여 시 부정적인 활용으로 치우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3) 향후 군사지리학 연구의 역할

앞에서 살펴 본 군사지리학 연구방향에 대한 도덕성과 활용성의 관계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각 군사지리학 연구 요소들은 활용성과 도덕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연구를 수행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군사지리학 기술의 경우 활용성 증가는 인명살상력 증대라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기여라는 결과를 낳았으나 인류의 삶 증진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면 복지 증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결과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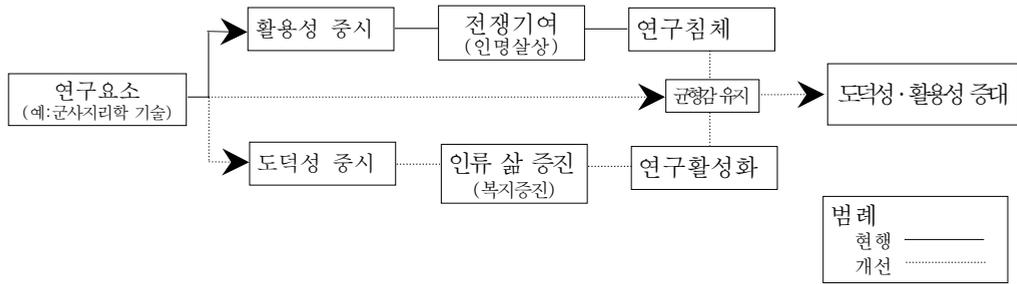


그림 1. 군사지리학 연구와 도덕성·활용성의 관계

연스럽게 균형 잡힌 연구로 이어지게 되면서 연구 활성화의 효과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전쟁 승리를 위한 활용성의 중시로 인해 도덕성 측면은 무시되거나 경시되었으며 군사지리학 연구의 침체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그림 1의 진행과정을 통해서 군사지리학 분야의 연구 기능들이 가지는 ‘인류의 삶의 파괴와 증진’ 모두에 작용 가능한 이중적 속성을 알 수 있다. 군사지리학 연구가 도덕적 가치를 중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연구의 이중적 속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군사지리학의 연구 수행 간 이러한 이중적 속성에 대한 균형 감각 유지를 통하여 도덕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증대할 수 있는 학문의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지리학 연구 기능들이 가지는 이중적 연구 속성은 표 3과 같이 구분되어진다. 군사지리학 연구 기능은 아직까지 그 영역과 범위 면에서 정립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식별한 일부 분야에 국한하였다.

군사공간의 시설환경 구축 면에서 주변요소와의

조화를 우선시하면 도덕성이 중시되는 관점의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군사적 활용을 우선시하는 시설 구축에 중점을 두게 되면 전쟁에 기여하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군사지리학 기술은 전쟁기여 면에서는 월남전에서의 경우처럼 살상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어졌다. 그러나 인명보호 면을 중시하면 방호력의 증대와 입지선정, 자원 확보 등 복지적 측면의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자원관리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효율적 관리를 통한 안정적 활용 능력 확보는 삶의 질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함으로써 학문연구 면의 도덕성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전쟁물자 활용 목적의 자원 연구에 치중할 경우 전쟁지속능력 강화 면에 기여하는 연구가 수행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과거 전쟁에 대해서 인류의 삶에 끼친 피해를 반복하지 않는 교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면 환경의 파괴와 무분별한 인명살상에 대한 인문지리학적 반성이 수반되는 연구로 연결되면서 도덕성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전쟁수행의 미흡한 분야를 식별하는데 중점을 두면 파괴력 증대와 같은 전쟁기여 면의 군사력 강화로 나타나면서 군사지

표 3. 군사지리학 연구 기능의 이중적 연구 속성(예)

연구 기능	도덕성	활용성
군사공간의 시설환경구축	주변 요소와 조화	군사적 활용 우선
군사지리학 기술 분야	방호력 증대, 인명피해 최소화	공격력 강화
자원관리	효율적 관리, 삶의 질 증진	전쟁지속능력 강화
지리요소적 전훈 분석	환경보전, 조화	전쟁능력 보완

리학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군사지리학의 각 연구기능들에 대한 균형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 본 각 연구요소가 가지는 활용성과 도덕성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쟁기여에 중점을 두으로써 대량파괴를 수반하는 승리를 위한 활용 면에 치중하여 군사지리학 요소가 가지는 도덕적 측면의 가치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 그 결과 군사지리학 연구요소가 인류의 발전적 측면에서 가지는 가치는 거의 무시되었다.

한편, 학문 연구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규범적 가치 확보를 우선시하여 활용성에 대한 증진을 소홀히 하면 과학기술의 미래 발전적 활용 측면에 필요한 학문 연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학문의 진정한 발전과 연구의 활성화화를 위해서는 인류의 삶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발전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병행될 경우 군사지리학은 학문연구의 활성화에 필수적 요소인 '학문의 규범적 가치와 과학적 이론화'분야에 대한 연구의 방향성 정립이 가능하다. 학문의 고유영역 분야는 별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군사지리학의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측면의 활용성 확대가 도덕성 확장과 함께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가 제시하는 군사지리학 연구방향의 핵심이다.

6. 결론

응용지리학은 1960년대에 지리과학기술을 사회, 경제문제에 활용하기 위한 관점에서 지리학의 하위 학문의 한 분야로 분류되었다. 1966년에 군사지리학을 응용지리학으로 분류하게 된 것도 응용지리학 탄생 이유와 동일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즉 전쟁승리를 위한 목적 면에서 자연지리학 분야의 지형정보와 지리과학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전쟁기여 면에서의 군사지리학에 대한 인식은 군사지리학의 기원으로부터 월남전에 이르기까지 군사지리학 연구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군사학에서는 전쟁수행을 위한 군사이론과 용병술 형성에 관하여 군사지리학을 중요한 이론제공요소로 인식하는 가운데, 학문적 연구 및 교육의 주요한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군사지리학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전개공간에 대한 연구와 전략, 작전, 전술 측면의 관계를 통해서 군사이론과 용병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사지리학은 군사학의 주요 기반인 군사이론 형성 간 전략적 환경평가 및 군사이론의 실제 적용분야에서 응용지리학으로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용병술 형성 또한 군사지리학의 주요 요소인 지형적 특징에 그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쟁기여 면에서의 연구가 전통적인 군사지리학 연구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폭력행위를 수반하는 전쟁기여 면의 응용적 활용성을 증시한 결과 학문연구의 도덕적 관점에서 군사지리학은 연구의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인권, 파괴의 후유증, 환경보전 등을 중시하는 급진지리학 관점이 대두되면서 기존의 전쟁기여 면의 전통적 연구를 위주로 하는 군사지리학 연구의 침체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문연구의 침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대두된 주장이 군대의 평화유지 및 인도주의 활동 분야로 군사지리학 연구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기저에는 학문연구의 도덕적 관점에 의한 규범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때 군사지리학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군사지리학 연구 기능은 연구방향의 설정에 따라 전쟁에 기여할 수 있거나 인류의 삶 증진에 기여할 수도 있는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지리과학기술의 능력은 전쟁 기여만이 아닌 인류의 삶 증진에도 기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도덕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군사지리학 연구 기능들이 가지는 이중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군사지리학 연구가 부정적 인식을 초래한 활용성 증시 관점의 인식에서 탈피하여 도덕성과 활용성에 대한 균형적 인식에 바탕을 둔 새로운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응용지리학으로서 규범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다.

인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군사학에서 차지하는 역할 면에서의

높은 비중을 고려할 때 군사지리학 연구수행에 있어서 도덕성과 활용성의 균형적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응용지리학으로서의 군사지리학의 역할 제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군사지리학은 자연지리학 및 인문지리학 분야별 연구기능의 이중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쟁에 기여하는 학문적 인식에서 전쟁의 피해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는 분야로까지 연구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도덕성과 활용성을 모두 중시하는 연구방향의 정립을 통해서 군사지리학은 전쟁과 평화에 모두 기여할 수 있는 완전한 학문으로서 응용지리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며, 군사지리학의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국내외 연구 활동 간의 심층 깊은 비교 분석이 미흡한 점이다. 이는 국내외 군사지리학 연구 인원의 제한된 분포와 군사적 분야와 관련된 연구 자료의 접근이 제한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본 연구를 기점으로 연구기반이 확대되고 연구 분위기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사

본 연구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UD140022PD).

주

- 1) 국제지리연합(I.G.U: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국제학술원(International Research Council) 산하 단체로 1922년에 설립되었다. 각국의 지리학회(Geographical Association)가 주요 구성원이며 4년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은 1960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19회 회의 시 정식으로 가입했다.
- 2)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국토개발사업의 입지와 시설규모에 대한 목표와 지침이 되는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장기계획을 말한다. 국토의 자연

- 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도록 중점을 두고 있으며, 1972년부터 10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 3) 셔먼(Willim Tecumsch Sherman)장군: 미국 남북전쟁 시 북군의 장군으로 남부의 물자 및 시설에 최대한 타격을 가하는 전술인 전면전을 응용한 장군으로 현대전의 창시자로 여겨진다. 유명한 '셔먼의 바다로의 행진'은 당시 남부연합의 수도였던 리치먼드(Richmond)를 남부에서 포위공격하기 위해 롤리(Raleigh,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컬럼비아(Columbi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도)를 점령하면서 진격한 전략적 기동으로 리치먼드와 남부의 주들과의 연결을 끊었다.
- 4) 용병술이란 '준비된 군사력을 어떻게 사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서, 이론적으로 국가전략 개념 하에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활동으로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전략, 작전술 및 전술전기를 망라한 이론과 실재를 의미한다.
- 5) 견벽고수전술(堅壁固守戰術): 고려의 방비체제는 북방 요충지에 구축된 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성을 근거지로 하는 방어전법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러한 성 중심의 방어전법이 견벽고수전술이다. 견벽 고수는 성을 굳게 지킨다는 의미이다. 지형의 이점을 이용하여 구축된 성곽에 무기·식량·식수 등을 준비한 상태에서 공격해 오는 적과 싸워 성을 지키는 것이다. 이 전법은 적의 공격에 대하여 적의 전투력을 소모시키면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가 승패의 관건이었다.
- 6) 인병출격전술(引兵出擊戰術): 견벽고수전술과 병행하여 적의 포위망에 취약점이 발견되면 재빨리 성문을 열고 출격하여 이를 격파하는 전술이다. 또한 성 외의 요지에 복병을 배치하여 기습하거나 인접한 여러 성이 연합하여 적을 역포위하여 이를 격파하는 등 적군의 전력소모를 최대한 강요하였다.
- 7) 거점중심방어체제(據點縱深防禦體制): 한반도의 산악지형은 산성을 이용한 성곽전에 유리하였다. 따라서 대병력을 국경에 상주시키는 대신 적 침공시 성을 이용하여 견벽고수(청야입보), 인병출격(이일대로) 전술에 의해 축차적으로 적의 공격 기세를 약화시키다가 적의 약점이 발견되면 반격을 가하여 적을 섬멸한 전술이었다
- 8) 규범적 가치: 사회과학은 인류사회의 모든 현상을 실험적이고 합리적으로 연구하여 사회의 객관적 법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킨다. 군사적 분야의 학문도 인류사회의 역사 진행 속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전쟁의 위협 요인과 현상을 연구하고 국가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원리를 규명하여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규범적 가치를 가진다.

참고문헌

- 강진석, 2012, 현대전쟁의 논리와 철학, 동인.
- 국방대학원(역), 1985, 軍事理論, 325-326(Julian, 1983, *Military Theory*, Swed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Gower Pub. Co. Lt., England).
- 국방대학원(역), 1987, 조미니의 전쟁술, 국방대학원 교수부(Baron De Jomini, 1862, *Art of War*, J. B. Lipincott & Co., Philadelphia).
- 국방대학원(역), 1988, 군사지리, 국방대학원(Louis C. Peltier & G. Ertzel Percy, 1966, *Military Geography*, D. Van Nostrand Company, Inc. Princeton, New Jersey).
- 권영식·김성희·원익환·이형호·한욱·유우익, 1976, 국방지리, 5판, 박영사.
- 김광수(역), 1999, 손자병법, 책세상(손자, B.C.6세기, 孫子兵法).
- 김만규·조내현·박종철, 2010, “분포형 합성환경자료의 군사시물레이션 적용,” 한국시물레이션학회 논문지, 19(4), 235-247.
- 김만규·강윤아·김형기·한순홍, 2013, “SEDRIS 합성 환경 데이터 가시화를 위한 변환기 개발,” 한국 CAD/CAM학회 논문집, 18(3), 189-199.
- 김형남, 1991, “지정학과 군사전략(한반도를 중심으로),” 국방참모대 연구문.
- 김형용, 1995, “한반도의 군사지리적 특성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지형 및 기상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석기용(역), 2003, 전쟁과 과학—그 야합의 역사, 이마고, 28(Ernest Volkman, 2002, *Science Goes to War: The Search For the Ultimate Weapon from Greek Fire to Star Wars*, John Wiley & Sons).
- 신용석, 2005, “영미 관광지리학의 변천에 대한 통시적 고찰—연구접근법과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대한 지리학회지, 40(4), 397.
- 심재현·노승철·이희연, 2012, “서울의 장수도의 시·공간적 변화와 장수 커뮤니티의 특성 분석,” 서울도시연구, 13(4), 65-67.
- 양욱, 2011, “4세대 전쟁:한국의 대비책은?,” 시사저널 통권, 1108, 시사저널사, 30-33.
- 육군교육사령부, 1987, 군사이론연구(용병체계 중심), 군사발전지 부록, 44, 육군인쇄창, 61-63.
- 육군대학, 1988, 군사평론, 275, 육군대학, 7-9.
- 육군대학, 1989, 군사지리, 276, 육군대학, 196-197.
- 육군본부, 2007, 한국 고전사, 육군본부, 112-119.
- 원익환·권영식·박병권·이형호·유재신·한욱, 1980, 군사지리(한국 및 주변국), 박영사.
- 이종학(역), 1974, 전쟁론, 일조각(Karl Von Clausewitz, 1943, *On Wars*, The Modern Library).
- 이종학, 2010, 한국군사사 연구,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145-601.
- 이한중, 1999, “안전보장 이론(21장 군사지리),” 국방대학원 연구문, 481-490.
- 이희연, 1996, “응용지리학 일반의 회고와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31(2), 332.
- 조동규, 1976, “응용지리학,” 지리학, 11(1), 51.
- 하대덕, 1992, “한국의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방향,” 국방대학원 '92안보학술세미나.
- 현대우, 1991, “군사지리,” 교육사 연구문.
- Doyle, A., and Bennett, M. R., 1997, Military Geography: terrain evaluation and the British Western Front 1914-1918, *The Geographical Journal*, 163(1), 1-3.
- Haning, T., 2009, Geography of War:The Significance of Physical and Human Principles, *Focus on Geography*, 52(1), 32.
- Jackman, A., 1962, The Nature of Military Geography, *The Professional Geographer*, 14(1), 7-12.
- Johnson, D. W., 1921, *Battlefield of the World War*,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Research Series 3, Oxford University Press, xviii-xix, New York.
- Johnston, R.J. 1981, Applied geography, quantitative analysis and ideology, *Applied Geography*, 1, 213-216.
- Lacoste, Y., 1973, An Illustration of Geographical Warfare: Bombing the Dikes on the Red River, North Vietnam, *Antipode*, 5(2), 622.
- Lacoste, Y., 1976, *La Géographie, ça sert, d'abord, à faire la guerre*, Maspéro, Paris.
- Lavallee, T. S., 1836, *Géographie Physique, Historique et Militaire*, v-viii, Paris.
- Lebon, J. H. G., and Stamp, L. D., 1967, Land Use in Sudan, *Middle East Journal*, 21(1), 116-117.
- Maguire, T. M., 1899, *Outlines of military ge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madouh, V., 2004, *The Geography of war and peace:*

- From death camps to diplomats*, Oxpond University Press.
- Murray, W., 1999, Some Thought on War and Geography,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22(2-3), 202-208.
- Pacione, M., 1999, Applied Geography: in pursuit of useful knowledge, *Applied Geography*, 19, 1-9.
- Pacione, M., 2011, Applied Geography: Principles and Praxis, *Hrvatski Geografski Glasnik*, 73(1), 7-10.
- Palka, E. J., 1995, The US Army in Operations other than War: A Time to Revive Military Geography, *Geo-Journal*, 37(2), 201-208.
- Palka, E. J., Galgano, F. A., and Corson, M. W., 2005, Operation Iraqi Freedom: A Military Geographical Perspective, *The Geographical Review*, 95(3), 374-399.
- Peet, R., 2000, Commentary: celebrating 30 years of radical geography, *Environment and Planning A*, 32, 951-953.
- Roder, W., 1973, Effects of Guerilla War in Angola and Mozambique, *Antipode*, 5(2), 14-15.
- Sant, M., 1992, *Applied Geography*, 12, 295-296.
- Sidman, P. P., 1994, The training of military Geographer, *Journal of Applied meteorology*, 10, 202.
- Stamp, L. D., 1960, *Applied Geography*, Harmondsworth.
- Woodward, R., 2005, From Military Geography to Militarism's Geographies : Disciplinary engagements with the Geographies of militarism and military activit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6), 732.
- Liberty References, 해외학술자료(프레드릭대왕 지시문), <http://www.libertyreferences.com/frederick-the-great-instructions-to-his-generals-22.shtml>
- 교신: 황성한, 314-701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56(인사대) 지리학과(이메일: jmy6397@naver.com, 전화: 010-5072-2367)
- Correspondence: Hwang Sung-Han , 314-701, Dept. of Geography, Kongju National University, 56 Gongju Daehakro, Gongju, Chungnam, Korea (e-mail: jmy6397@naver.com, phone: 010-5072-2367)

최초투고일 2015. 1. 8
수정일 2015. 1. 26
최종접수일 2015. 1. 27